

대안(생명)농업의 성서적 기초¹⁾

-한국의 입장에서-

한 경 호 (목사, 21세기농촌선교회장)

1. 머리말

우리는 지금 문명의 전환기(age of paradigm shift)에 살고 있다. 과거 인류의 삶을 지배해왔던 가치관과 삶의 양식(style of life)은 점차 붕괴되어 가고 새로운 가치관과 과학기술문명이 가져온. 이전과는 매우 달라진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수천 년 간 인류의 생존과 문화를 지탱해왔던 뿌리인 농업이 주변으로 밀려나고 공업과 상업이 중심권에 진입한 사회로 변화되었다. 교통, 통신의 발달은 국가간, 인간간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혀 하나의 세계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1) 이 글은 지난 2003년 12월 7-8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ECAG (Ecumenical Coalition for Alternative Globalization) 주최로 열린 “대안적 농업과 교역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제한 것이다.

는 오늘의 문명을 가능케 한 과학기술의 토대인 자연과학적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느냐 하는 것과 인류의 생존과 문화의 토대인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자(前者)는 세계관에 관련된 문제요 후자(後者)는 생명과 영성에 관한 문제이다.

양자론과 상대성이론으로 대표되는 현대물리학은 고전물리학에 기초한 세계관과는 확실히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시공(時空)의 상대성, 유기적이고 전일적(全一的)인 세계관은 서양과학기술 문명의 발전 토대인 이원론적 철학과 기계론적 세계관을 뛰어 넘도록 만들었으며 고대 동양사상과의 의미있는 만남을 가능케 하였다²⁾. 그러나 과학기술문명의 혜택은 크게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자연과학적 진리와 그것이 제시하는 세계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아직 무지한 형편이다. 그 결과 상호의존적이고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역동적인 세계를 과거의 낡은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규정 지우는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업은 인간의 생존을 좌우하는 생명산업이며 인류문화의 원천이요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산업혁명이후, 한국에서는 개발독재와 함께 추진된 공업화정책이후(1960년대 이후) 사양산업으로 밀려났고 누구도 짊어지지 않으려는 천덕꾸러기 산업으로 전락하였으며 농민은 차별 당하고 있다. 농업과 농민이 이렇게 대접 받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각 나라는 오랜 기간 자신들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나름의 고유한 전통적인 농사방법들을 발전시켜왔다. 한국도 그 중에 속한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농사도 공업화 정책 이후 생산력증대 방침(소위 녹색혁명)에 힘입어 화학비료와 화학농약 중심의 농법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생산력은 많이 증대되었다. 특히 주식인 쌀의 경우가 그렇

2) 현대물리학자(하이젠베르크, 닐스 보어, 패러데이 등)들이 물질의 궁극적 세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얻은 통찰들은 동양고대의 사상인 노장사상, 힌두사상, 불교의 화엄사상 등과 유비(analogy)가 되고 있다.

다. 그러나 농약과 화학비료 중심의 소위 근대농법은 농민들의 노동력을 덜어주고 소출은 증대시켰지만 새롭고도 심각한 생태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죽임의 농법! 이것이 관행농법에 대한 결론적 지칭이다. 땅을 죽이고, 작물과 가축을 오염시키고, 생산농민에게 농약 중독을 일으키고,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는 이 농법이야말로 모두를 죽이는 죽임의 농법이다. 노동력의 절감과 소출의 증대라는 열매 대신 우리는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독약을 마시고 있다. 어떻게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하지 않다.

한국농촌은 지금 자연양로원이다. 청년들은 모두 다 도시로 나갔고 농촌은 그들의 부모들이 지키고 있다. 60세 이상이 55.4% 70세 이상이 18.2%이다. 우리 동네도 마을청장년회의 가입연령이 20세에서 60세까지이며 환갑이 든 노인이 회장이다. 60세이면 환갑이요 예전 같으면 손자들 데리고 농사노동으로 부터는 자유로워진 나이이다. 그러나 지금은 60이 청년이고 70이 넘어도 일을 해야 한다. 농기계와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들의 노동력으로는 농사짓기가 어렵다.

아마도 이런 현실은 정도와 진행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현상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죽임의 농법의 극복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다. 특히, WTO 체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의 세계화는 각국의 전통적인 농법들을 무시하고 종자의 독점과 육종을 통해 세계농업의 재편을 기도하면서 죽임의 농법을 확산시키고 초국적 곡물 메이저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다.

“우리는 농업을 통하여 세계를 볼 수 있다”. ‘죽임의 농법’은 현대 ‘죽임의 문명’의 축소판이요 상징이다. 죽임의 문명의 극복은 여러 분야에서 경주되어야 하는바 우리는 인류생존의 토대인 농업의 복권과 제자리 찾기를 통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

2. 한국에서의 대안(생명)농업의 시작과 전개 과정

한국에는 정농회(正農會)라는 농민단체가 있다. 명칭의 뜻은 바른 농사이다. 1976년도 1월에 창립되었다. 이 모임의 중심회원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다. 주로 무교회주의(일본의 우찌무라간조가 시조) 신앙인들이다. 이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배반행위인 관행농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앙적인 결단으로, 그리고 한·일간 의 응어리진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한국 근대 생명농업 운동의 시작이다³⁾. 역사가 길지 못하다. 당시만 해도 농법의 전환은 생계를 포기할 각오가 있어야 했고 주위로부터의 질서와 비난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들은 예언자적인 자세로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인과 대결하는 심정으로 시작했다고 한다⁴⁾. 그들의 모임은 새벽예배로 시작되며 “성경을 모르면 농사를 논하지 말라”고 하면서 농사의 토대를 성경에 두고 있다.

이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생명운동의 싹이 났다. 강원도 원주의 장일순 선생⁵⁾에 의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유명한 시인 김지하가 함께 협력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1980년도 광주항쟁 직후여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현안이었기에 생명운동의 목소리는 크지 못했고 주변에서 맴돌았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원주에서 ‘원주 한살림소비자협동조합’이 결성되었고 그 이념적 토대 구축을 위해 1988년도에

3) 1975년 9월 일본의 고다니 준이치 선생이 한국의 신앙동지들에게 한 말이 크게 자극이 되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중죄에 대하여 사죄하였고 농업의 방향을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정농회는 일본의 애농회와 동지적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류해 오고 있다.

4) 1986년도 정농회 정기총회에서 고문으로 있는 원경선 선생이 한 말씀

5) 이 분 또한 한국생명운동의 사상적 시조이다. 그는 1970년대 까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투쟁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와 한국 근대사에서 활동한 동학의 2대 교주이신 해월 최시형 선생의 말씀 속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생명사상을 발견하고 현대의 상황에서 재조명하였으며 한살림운동의 사상적 대부로 활동하였다. 그는 천주교 신자였다.

‘한살림연구회준비모임’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연구와 토론활동을 통해 1989년도에 『한살림선언』⁶⁾을 공표하였고 ‘한살림모임’을 창립하였다.

1989년 4월에는 원주의 농촌교회인 호저교회가 중심이 되어 농민들과 함께 ‘호저소비자협동조합’⁷⁾이 결성되었고 이후 여러 농촌교회에서 생명공동체 운동을 전개하였다. 동시에 일반 소비자들도 이에 호응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 도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주로 생활협동조합의 조직 형태로 표출되었다.⁸⁾ 식품의 안정성(stability)도 중요하지만 안전성(security)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도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탄생으로 ‘가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가 운동방향을 바꾸어 생명운동을 중심과제로 삼기 시작하였다⁹⁾. 종교적 농민단체들의 방향전환은 농민들에게 대안(생명)농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6) 이 소책자는 1989년도 11월에 발행되었으며 김지하가 초안하였다. 내용은 1.산업문명의 위기 2.기계론적 모형의 이데올로기 3.전일적(全一的) 생명의 창조적 진화 4. 인간안에 모셔진 우주생명 5. 한 살림 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이 조합은 필자가 호저교회에 재직 중에 결성한 농민들의 경제협동조직이다. 후에 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명칭도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다. 현재 600여세대가 가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8) 한국에는 현재 약 110여 개의 생활협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인구 분포상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생협 초기에는 생명농산물 직거래운동이 주요 활동과제였으나 점차 변화되어 지금은 그 외에 지역사회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민운동 차원을 담보해 나가고 있다.

9) 가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는 그동안 농민들의 권익옹호와 반농민적 정책의 수정을 위해 투쟁해왔다. 그러나 종교의 울타리안에 있기에 한계가 있어서 농민들이 주체가 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에 그 과제를 넘겨주고 이후 본연의 종교성을 배경으로 생명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1996년도에는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국귀농운동본부'가 결성되어 뜻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 농촌으로 보내고 정착시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상공업중심의 도시문명에 대한 한계인식, 농업을 통한 새로운 삶의 양식 추구, 그리고 생명농업으로의 전환이 그 내용이다.

지금도 한국농업은 수입개방의 확대로 몰락하고 있다. 농가경제가 파산상태에 있다. 과다한 농가부채로 야반도주하거나 곳곳에서 농민들이 자살하고 있다. 잘 아시듯이 멕시코 칸쿤대회에서 한국농민 이경해 씨¹⁰⁾가 자결(自決)한 것은 WTO중심의 세계화가 한국의 농민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준 커다란 상징이다.

이러한 한국농업 위기를 극복하고자 2002년도에는 '농업회생연대'가 결성되었고 이 뜻에 동참하는 사람 100여명이 2002년도 여름, 100일간에 걸쳐 전국을 걸어서 순회하면서 농업의 위기를 알리고 농업의 회생을 외쳤다¹¹⁾. 그들이 주장하는 회생방안의 핵심도 생명농업으로의 전환이었다.

이렇듯 한국에서는 생명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소비자와 생산자가 연대하여 식품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한국농업을 보호하고 모두의 건강을 지키자는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농업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가치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65% 이상이 수입농산물에 비해 국산농산물이 좀 비싸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국산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농산물가격은 수입농산물보다는 비싸지만 한국 내 일반공산품과의 가격에서는 싸기 때문이다.

10) 그는 한국농민단체연합회 회장이었으며 동시에 예장(통합)산하 전북 장수의 장수교회 교인이었다.

11)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정농회의 정경식 씨였다. 그는 자신의 농사를 폐농하고 온전히 이 운동에 매달려 농업의 회생을 전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3. 생명농업의 현황

2002년도 현재 농림부의 통계에서 보듯이 아직 한국에서의 대안 농업운동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농민들이 현재의 농사방법으로는 안 된다, 대안농업이 아니고서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라도 해서 농사를 계속 지어야하는가? 그렇게 하면 정말 살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과농사에 대한 자신감 결여이다. 농업이 내 가족의 생계를 정말 책임져줄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고령의 농민들은 탈락되어 나갈 것이고 젊은 농민들 중에서 뜻 있는 소수와 귀농(歸農)하는 도시인들이 대안농업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친환경농업 현황

친환경농가 31,342호	전체농가 1280,000호	전체 대비 2.4%
경지면적28,000ha	전 경지면적 1860,000ha	전체 대비 1.5%
생산량 594,000 ton		

<2002년도 현재 농림부 통계>

* 이 자료에서 친환경농가는 여러 수준을 합친 것이다. 유기농가, 전환기 유기농가, 무농약농가, 저농약 농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한국생명농업의 성서적 기초

한국생명농업운동의 출발 바탕에는 성경이 있으며 이 시대 문명의 반(反)생명성에 대한 통찰이 있고 그를 극복하려는 신앙적 결단이다. 성경을 빼놓고 한국생명농업운동을 말할 수 없다.

풍요와 다산(多産)의 신(神)인 바알은 엘리야 시대에만 역사(役事)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의 바알은 화학농약과 화학비료이다. 이 둘은 농민들에게 편리함과 다산(多産)을 약속하였다. 모든 농민들이 그 길로 걸어갔다. 아

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기독교 농민들도 한가지였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다. 공업중심의 문화, 생산력 중심의 문화는 현대판 바알신이다. 기독교 농민들은 이제 양다리 걸치기에서 깨어나야 한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한국찬송가 521장 1절 가사 중에서) 결단해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따라 생명농업으로 전환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바알의 길을 따라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갈 것인지 결단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기독교 농민들이 생명농업을 시작하면서 가지는 신앙적 결단이다. 엘리야 선지자의 길은 무섭고 고독한 길이였다. 모두가 바알의 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믿음이 바알 신앙의 두꺼운 벽을 뚫고 생명농업운동의 문을 열도록 하였다.¹²⁾

생명농업으로의 전환은 신앙적 깨달음과 실천의지가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무엘상 6:10-14절¹³⁾까지의 말씀은 의미심장하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법궤를 빼앗겼다. 블레셋이 그로 인해 여러 재앙을 만나자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다. 법궤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인데 그것을 빼앗겼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은 ‘생명’이다. 그런데 이 중심을 물질중심, 인간중심의 가치관에 빼앗겼다. 두 마리의 소가 새끼에 연연하지 않고

12) 이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상의 투쟁 이야기는 정농회 고문인 원경선 선생이 정농회 정기총회에서 한 말씀이다.

13)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젓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와 케와 금궤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벤세메스 경계까지 따라 가니라 벤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케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벤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좌로나(물질중심) 우로나(인간중심) 치우치지 않은 것처럼 생명농업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래야 한다. 법계를 되찾은 다음에는 수레의 나무를 깨고 그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처럼 시작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번제로 드러져야 한다. 철저히 희생해야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기독교농민들의 신앙고백이다. 대단히 확고하고 철저한 신앙고백이 아닐 수 없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스가랴서 8:23절)는 말씀의 그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생명농업의 길을 걷고 있다.¹⁴⁾

생명농업으로의 전환은 농민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경북 의성의 김영원 장로는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농약을 주다가 중독되어 사경을 헤매는 아픈 경험을 하였다. 그는 부인과 함께 고민하다가 마침내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였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가 8:36-37)¹⁵⁾는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온 것이다. 농약중독의 체험을 통하여 그는 “이렇게 농민을 죽이고 결국 소비자의 건강도 해치는 이 농법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가?”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농민을 ‘죽음의 생산도구’로 내모는 비인간적인 현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당한 생명농업으로 전환하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 6:33)는 말씀을 그는 삶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생명농업에 대한 고백은 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새롭게

14) 이 법계 이야기는 정농회 고문인 오재길 선생이 정농회 정기총회에서 한 말씀이다.

15) 부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사람이 만일 사과 소출을 많이 얻고도 제 남편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남편을 바꾸겠느냐”는 말씀으로도 읽힐 수 있다.

발견토록 하였다. 자본주의 체제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한국사회는 땅을 재산으로, 물질로, 돈으로 환산하는 데에 매우 익숙해졌다. 농민들도 그렇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니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맺는 과목을 내는”(창 1:11) 생명이었다. 창조 본연의 모습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땅은 권력과 힘에 의해 독점되거나 마음대로 처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님도 알게 되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으나 나봇은 “내 열조의 유업(遺業)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지로다”(왕상 21:3)라고 대답하였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레 25:23). 땅의 생명성과 반(反)독점성, 하나님소유권의 발견과 고백은 생명농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5. 농업에 대한 성경의 이해와 공익적 가치

농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최초의 산업이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창 3:23) 하셨다. 농업의 시작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근본된 토지’이다. 다 알듯이 농업은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그런데 토지(땅)는 인간의 근본이요 그로부터 인간이 비롯되었다. 농사는 자신의 근본인 땅과 함께 씨름(소통)하면서 생명을 기르는 노동이다. 자기 존재의 근원과 함께 하는 농사!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소유의 노동’을 넘어서는 ‘존재의 노동’을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농사인 것이다.

생명을 기르는 땅은 모든 생명들이 공동체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알맞게 위치를 잡아주고 보듬는다. 만일 특정한 생명체의 독점과 과점으로 생태적 균형이 깨지고 공동체성이 파괴되면 원

상태로의 회복을 위해 곧바로 심판의 반응을 보인다.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려 형제공동체가 파괴되자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받을 갈아도 그 효력이 나지 않게 되었다(창 5:11-12 참조). 생명력이 상실된 것이다.

홍수 심판 후 노아는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창 9:20)고 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능한 축산농민이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인류역사의 초기에 농업은 생존의 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基業)이었다. 이후 인간의 문화는 농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그 삶에는 생명과 공동체성이 담겨 있다.

“농업 없이는 문화도 없다”(without agriculture, no culture).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삶의 양식’으로 존재해 왔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농업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이 농업의 생태성과 공동체성은 현대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도시 문명¹⁶⁾의 한계에 직면한 예민한 도시인들은 이제 농촌의 존재를 다시 보기 시작하였고 농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하기 시작하였다.

농업은 또한 여러 가지 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인간 생존의 절대적 조건이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생존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식량이 없으면 죽는다. 농업의 절대 영역이다. 둘째, 농업은 국가의 안보 및 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권이 흔들리게 된다. 특히 강대국에 의지하는 경우 더 큰 시련에 봉착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논농사의 경우 물 담수량은 수

16) 가인 설화에서 보듯이 가인은 낫(mod)땅에 에녹성을 세웠다. 도시의 기원이다. ‘낫’은 ‘휴식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휴식이 없는 땅위에 건설된 도시문명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최근 한국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무작정 농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열위, 자녀교육수준의 저하(공교육 수준), 교통의 불편, 문화의 낙후를 그들은 오히려 삶의 더 나은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력담 전체 담수량의 8배가 넘어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한국의 경우 홍수방지 기능을 한다. 이밖에도 토양침식의 방지, 대기정화 등 여러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해의 쌀 생산량 전체의 가격(약 8조원)과 비슷하다.

6. 농사가 길러주는 영성(농심)

마태복음 5:5절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물론 시편(37편) 등 구약에 있는 말씀이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도 말씀하고 있다(시편 37:29). 땅을 기업(基業)으로 받는다는 말은 땅을 생계의 토대로 받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농사로 기업을 삼는다는 말이요 농민으로 살아간다는 말이다. ‘온유(溫柔)’의 뜻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이다.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생명을 기르는 최고의 기운(energy)이다. 땅의 성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이것은 어머니의 품성과 같다. 생명을 기르는 사람의 마음(영성)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농민의 마음은 그래서 온유함에 있다. 온유는 나아가 ‘풍부한 화평’을 가져온다(시편 37:11). 여기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와 창조의 보전(Justice, Peace, Integration of Creation)이 하나로 어우러짐을 볼 수 있다.

또한 농민은 인내심이 강하다.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야고보서 5:7-8)는 말씀에서 보듯이 농민은 열매맺기를 기다리며 현재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참는다. 그것은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전 9:10)고 말하고 있다. 소망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다.

온유, 인내, 소망은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땅과 함께 소통하면

서 몸에 간직하는 마음이요 영성이다. 한국인의 품성을 말할 때 흔히 '은근과 끈기'라고 한다. 이것은 한국농민들의 품성을 대변하는 말이다.

7. 맺는 말

세계는 지금 초강대국과 초국적기업들의 권력과 자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또한 기계론적 세계관과 산업문명은 인류를 파멸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 반신적(反神的), 반(反)생명적, 반(反)공동체적인 현실을 극복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책임이요 소명이다.

우리는 이 문명의 죽임의 속성을 소위 농약과 화학비료 중심의 근대농법에서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속히 탈피하여 생명농법으로의 전환과 그 일을 통해 살림의 문명을 이루어나가는 일이 기독교농민들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신앙을 가진 일단의 한국농민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제 30년의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들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역사가 우리 편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말이다.

“생명을 보존케 하라”, “생명을 보존케 하라”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 두 군데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컷전을 때리고 있다. 農